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예정가격이 1,873백만원인 영등포구재활용센터 1관 부지를 취득하기 위함.

제안내용

-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3가 407외 11필지
 - 소 유 자 : 국가(재정경제부)
 - 대지면적 : 756.7m² (229.3평)
 - 취득목적 : 재활용 시설 확장 (매년 20%이상 판매실적 증가)
 - 취득방법 : 5년 연부취득
- ※ 재산관리 계획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구 자체계획(안)의 내용임

검토의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제13조의2에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안의 부지매입 목적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현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1관은 1985년에 건립된 경량철골조 건물로서 노후도가 심하고 협소하여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 대상물품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우리구의 원만한 청소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계획안과 같이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시의에 맞고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매입 계획안을 살펴보면 제안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총 부지 매입액 1,873백만원을 5년 연부로 납부하며, 2006추경에는 188백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2006.5.31 동 부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1,785백만원으로 당초 계획수립시의 공시지가 1,441백만원보다 344백만원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매입가격의 산정은 통상 공시가격의 130%로 계상하므로, 실제 계약할 수 있는 추정가격은 2,321백만원이 될 것이며,

- 5년 연부로 계약할 경우 2006년 추경에 확보할 예산은 10%인 232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 건물의 신축은 동 부지에 연면적 450㎡(136평)의 3층 건물 1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정 건축비 5억원중 2억5천만원은 우리구 2006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2억5천만원은 2006.4.10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있습니다.
- 본 계획안이 의결될 경우 서울시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2006.5.29 우리구에 통보된 국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면,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 제2항의 국유지 매각기준인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어 불승인하였는바,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6. 22

보고자 : 김 찬 재